

더 아름다운 여수밤바다가 온다

市·관광공사,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업무 협약

ICT 기술 기반 '밤.디.불 낭만 여수여행' 박차

여수시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여수시는 7일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총 70억 원(국비 35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 관광 5대 요소인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내년 5월까지 구현한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통합플랫폼에서 교통·음식·숙박·관광지 등 다양한 분

의 정보와 함께 예약·결제 서비스, 한·영·중 다국어서비스, AI 기반 여행 경로 추천 등을 받아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집 배송과 보관, 유모차·반려동물·휠체어 정보, 공영자전거(여수랑) 위치 등 필요한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반딧불로 경험하는 밤.디.불 여수여행'을 주제로 이순신광장부터 낭만포차에 이르는 종포해양공원 1.5km에 '미디어 월, 드론 라이트쇼, 인터랙티브 버스킹, 메타버스' 등을 설치해 색다른 스마트 경험을

제공한다. 권오봉 시장은 "코로나19로 개별 여행객 비중이 높고 비대면 관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요즘 밤.디.불 여수여행 프로젝트가 침체된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관광객 개개인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 휴양 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말은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간 서비스별 세부 계획과 구축 단계 별 이행 방안 등의 수립을 마치고 이달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총 70억 원(국비 35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 관광 5대 요소인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내년 5월까지 구현한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통합플랫폼에서 교통·음식·숙박·관광지 등 다양한 분



여수시가 ICT 기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발전시키는 등 스마트 관광도시를 구현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시 제공)

말은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간 서비스별 세부 계획과 구축 단계 별 이행 방안 등의 수립을 마치고 이달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총 70억 원(국비 35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 관광 5대 요소인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내년 5월까지 구현한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통합플랫폼에서 교통·음식·숙박·관광지 등 다양한 분



고흥군은 지난 6일 두원농협유자기공사에서 송귀군 군수와 원시현 원인터내셔널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생강차 유럽(체코) 시장 첫 수출 기념 행사 행사를 가졌다. <고흥군 제공>

고흥생강, 유럽 시장 첫 수출길

체코에 생강차 20t 첫 선적... 현지 로컬시장 공략

고흥생강이 유럽 시장 첫 수출길에 올랐다. 고흥군은 지난 6일 두원농협유자기공사에서 고흥생강차 유럽(체코) 시장 첫 수출 기념 행사 행사를 가졌다. 원시현 원인터내셔널 대표와 최윤선 NH농협 고흥군지부장 등 수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고흥생강차의 첫 수출

을 축하했다. 생강차는 그동안 해외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에 소규모 또는 구색 맞추기 상품으로 수출됐다. 하지만 이번에 수출되는 고흥생강차는 유럽 현지 로컬시장에 수출되는 만큼 유자에 이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의미가 크다.

고흥군은 송귀군 군수를 단장으로 고흥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을 구성해 2019년 8월 12일간의 일정으로 체코 현지 마케팅을 실시, 원인터내셔널 등 3개 현지 업체와 120만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고흥 유자차는 협약 전인 2018년 6.7t이었던 체코 수출량이 올해 8월 까지 103t, 연말까지 150t에 예상돼 22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강차 또한 유자차 현지 시장 공략 성공을 바탕으로 유자차 연계 마케팅으로 고흥 농산물에 대한 체코 현지인들의 신뢰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시현 원인터내셔널 대표는 "고흥군과 함께 기존 한시장이 아닌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우수 고흥 농산물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귀군 군수는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 고흥농산물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두성 기자

동성케미컬(주), '여수시민가점제' 동참

지역 인재 채용 15번째 참여

동성케미컬(주)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여수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참 기업이 15곳으로 늘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시청 시장실에서 '동성케미컬(주) 인력채용 여수시민가점제 적용 협약식'이 열렸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석환 동성케미컬(주) 여수공장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기관의 상생 발전과 여수지역 청년실업

해소, 인구 증가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동성케미컬(주)은 신규 인력 채용부터 여수시민가점제를 적용하며 지역 인재 채용을 증진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여수시는 많은 기업이 가점제 협약에 참여하도록 도로·하천 등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가점제 참여 기업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석환 공장장은 "동성케미컬(주)은 여수시와 함께 성장해왔다"며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여수시민채용가점제 등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은 "시민 행복과 여수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상생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 민선 7기 사업 현장 확인 평가

41곳 찾아 집중 점검...차질없는 마무리 주력

고흥군은 올해 안에 최대 성과 달성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사항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은 고흥군 핵심 사업 중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41개 사업 현장 곳곳을 찾아 막바지에 이르는 민선 7기 주요 사업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추진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송귀군 군수는 "민선 7기 3년은 역대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기간이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주요 역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들이 변화된 고흥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들어 확인평가팀을 신설하고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군정 발전과 군민 수혜 등 사업 극대화에 중점을 둔 담당부서 별 토론회를 개최해 21건의 개선사항 권고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사전 설계심의 및 원가 산출 적정성 검토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계약심사 1천222건과 일상감사 1천133건에 대해 확인평가 결과, 지난해 4월 전담형 긴급생활비를 포함해 지난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105억원을 절감, 군 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섬섬여수옥수수' 디자인 확정

마케팅·유통 다각화 활용

여수시는 7일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섬섬여수옥수수 브랜드 디자인(사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디자인 후보군 10개 중 옥수수 향토사업단의 의견 수렴을 통해 5개 디자인을 선발하고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 등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위 750표 중 465표(27%)를 얻어 1위를 차지한 작품에 섬섬여수 BI를 적용해 디자인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섬섬여수옥수수 브랜드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디자인은 섬섬옥수에서 유래한 섬섬여수와 섬섬옥수수를 이중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배치해 눈길을 끈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의 즐거움 음표

를 연상할 수 있도록 옥수수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테두리 곡선을 뒀 한 눈에 들어 오고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섬섬여수옥수수 브랜드 디자인을 옥수수 톤(삶은 옥수수 알갱이), 냉동편옥수수, 국수(비빔국수, 온국수 밀키트), 조청, 과자, 차, 빵 등 옥수수 상품 홍보 마케팅과 유통 다각화에 중점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디자인을 적극 활용해 섬섬여수옥수수의 인지도와 상품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 모두 풍부한

장흥토요시장

● 장서는 날 ●
매월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장흥군
Jangheung County

문의 : 062)650-2099